

시라사키 해양공원

시라사키 해양공원은 하얀 석회암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하며 '일본의 에게해'라고 불립니다. 공원의 석회암층은 시라사키 해안의 카르스트 지형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카르스트란 암반의 용해로 싱크홀, 침강류, 동굴, 샘이 형성된 지형의 일종으로 가용성 암석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지형은 2억 5,000만 년 전 페름기의 것으로 고대 해양생물의 화석이 존재합니다. 시라사키 해양공원에서는 그 지형을 가까이서 보며 화석을 찾아보기도 하고, 전망대에서 해안선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공원 내에는 다이빙 사이트와 캠핑장 외에도 현지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 병설 안내소가 있습니다.

시라사키 해양공원의 지질학적 역사

석회암층은 조개껍데기와 산호 등의 생체 물질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탄산칼슘 덩어리입니다. 크리노이드(별명: 바다나리 또는 깃별나리)와 푸줄리나(껍질을 가진 멸종 단세포 생물) 등 고대 멸종 해양생물의 화석이 존재합니다. 푸줄리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공원의 카르스트 지형과 주변 해안선은 적어도 2억 5,000만 년 이상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푸줄리나 화석의 크기는 몇 mm에서 1cm 정도이며 쌀알처럼 보입니다. 이는 수평 단면을 보면 나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회암 채석

시라사키 해양공원의 옛 모습은 그 경관이나, 석회암 노출부분 외에도, 지금도 남아있는 몇몇 사용하지 않는 동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공원에서는 1897년부터 1972년까지 석회암이 채석되었습니다. 채석된 석회암은 건축, 비료,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짧은 기간 동안 채굴용 동굴이 군사비밀기지로 병사를 태운 어뢰의 보관과 발사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액티비티와 체험

시라사키 해양공원의 서쪽 경계에 있는 석회암층 위에 설치된 전망대에서 카르스트 환경을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위는 비에 의해 침식되었고, 칼슘 내성을 가진 식물이 들쭉날쭉한 용기 부분 사이에 군생하고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기이 수도(세토 내해 동쪽 끝에 위치) 너머로 아와지시마 섬과 시코쿠의 동쪽 해안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전망대에 들르고 공원 주위를 산책하려면 30~60분이 걸립니다.

이 공원은 캠핑과 다이빙 명소로 유명합니다. 캠핑장에는 텐트 사이트와 키친, 기본적인 전기제품이 완비된 오두막이 있습니다. 이곳은 주택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주변 석회암층이 빛 공해를 차단해 주기 때문에 밤은 별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공원 및 그 주변에는 초보자를 위한 비치 엔트리 포인트와 상급 다이버 전용 보트 엔트리 수중동굴 등 몇 곳의 다이빙 사이트도 있습니다. 현지 다이빙

스쿨을 통해 다이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